



정교회주보

제2428호

2023.7.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세르기오스와 바쿠스 성당(사진)은 6세기에 유스티니아노스 황제에 의해 세워졌다. 일명 '작은 성 소피아 성당'으로 불린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비잔틴 성당중에 하나다. 지진과 전쟁으로 여러 차례 파손되고 복원되었다. 현재는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마태오 제5주일

성 빵그라디오스 주교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주교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10,1~10 (봉) 154
- 복음경 : 마태오 8,28~9,1 11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병들어 누워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교회의 장례식 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그리도 헛되어라. 죽은 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 부유함은 사라지고 영광은 그치나니, 죽음이 덮치면 모두가 끝이 나네. ...”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치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 닥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이 탐욕으로 지상의 모든 보물을 모아놓았다 한들,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육신조차도,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두 지상에 남겨 두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와 가난' 중에서

마귀의 두려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우리의 유일한 적인 사탄은 무자비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로 우리를 악의 구렁이에 빠뜨리려고 온갖 흥계를 꾸미곤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영의 군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온갖 나쁜 흥계를 꾸며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루가 8,27-39)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을 항상 경계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귀 들린 한 사람이 주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사람 안에 머무르고 있는 마귀들이 말한 것입니다. 마귀들이 말한 “괴롭히지 마라”는 의미는 자기들을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처넣지 말라는 뜻으로 그곳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말을 들어 봅시다. 그들은 영

원한 지옥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나쁜 일만 일삼는 그들에 대한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이미 내리신 형벌로서 그들을 영원히 가두는 곳입니다. 마귀들조차 그들이 언젠가는 가야 할 지옥을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형제 여러분! 마귀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단정하여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도 직접 성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존재한 곳이 아니고, 마귀를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사람들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와 한통속이 되면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렁이에 처넣을 것이다.”(마태오 13,41-42)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마귀의 공포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탄의 온갖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간청하여 구원의 길로 한발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죄의 세계에 대해서 죽는 것

렙 질레 신부

성사도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로마서 6,4, 11)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땅에 묻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나의 영적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쉬워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유혹에 대해, 또 오직 한 가지 꼭 ‘필요한 것’(루가 10,42 참조)에서 나의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모든 것에 대해 지금과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테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나는 주님의 무덤 안에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고 싸우는 대신에 나는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른 쪽에 두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짓게 하는 욕망에서 멀리 떨어진 곳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부님, 기도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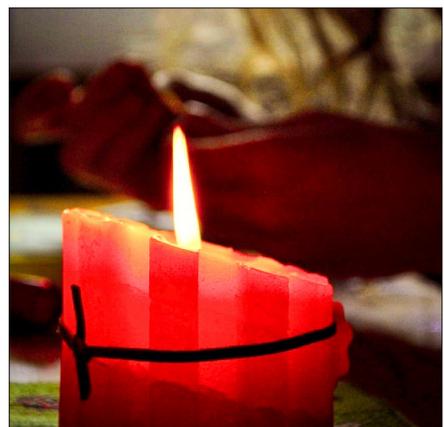
(아나니아스 쿠체니스 신부)

제가 어려서 작은 마을에 살았을 때, 한 번은 아토스 성산의 수도사제 한 분이 지나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어린 마음에 호기심을 갖고 여쭙었습니다.

“신부님, 기도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그러자 신부님은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애야, 이야기해주마.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드릴 때, 나는 요르단강과 같은 숨겨진 강이 내 영혼 속으로 파고들며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기쁨의 요르단강이지. 구원의 요르단강이고. 꽃들이 맘껏 피어난 봄 같은 것이란다. 나는 내가 천사가 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날개를 얻었고, 내 영혼은 높이 날아간다.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느끼면서 말이야...”





성인의 가르침

평온함을 위하여

한 초보 수도자가 피민 성인에게 고백했다.

“제가 혼자 수도처에 머물 때면 저는 인내심을 잃고 나태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그에게 권면했다.

“다른 형제 수도자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이 그대를 감싸주실 것이요. 그대는 기도처의 고요 속에서 평온과 안식을 얻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소식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 진행되는 대교구 여름 수련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6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일정: 7/21(금)-23(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4(월)-27(목): 초등부 (참가비 9만원)

7/28(금)-31(월): 중고등부 (참가비 9만원)

* 교통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 예배

성 바울로 사도의 축일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지난 주일(2일), 마르켈로스 카라게오르기우 수사 대신부(예루살렘 총대주교청 소속), 다니엘 대신부와 함께 조과, 성찬예배 및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또 모든 신자와 축일 오찬을 나눈 뒤,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주변 지역 재개발과 관련된 성당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서울 성당의 빠나요티스 김보성 교우가 지난 6월 27일, 안식하셨습니다. 장례식은 30일에 용미리 묘지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데스피나, 야고보, 미론 교우 등 모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평온히 안식하시길 기도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주최로 서울 성당 선교회관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연사로 초청되어,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참석자들에게 세계 총대주교의 축복을 전달하며, 전쟁은 민족·국가에 관계없이 하느님 안에서 형제되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기에 큰 죄임을 명시했습니다. 김 PD는 정교회의 이러한 시각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유튜브 성서 공부

대교구 유튜브 채널에 성서 공부가 새로 게시되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